

# 아말과

끌까지 널  
찾을 거야



# 사마

정승진 글  
김완진 그림

아말, 어디 있어?

독서  
지도안

# 1. 표지로 추측하기

- 주인공과 고양이는 무슨 관계일까요? 둘이 어떤 상황에 처했는지 추측해 보세요.



- 여러분의 반려동물을 소개해 주세요. 반려동물이 없다면 언젠가 함께 살고 싶은 동물을 상상해서 적어 보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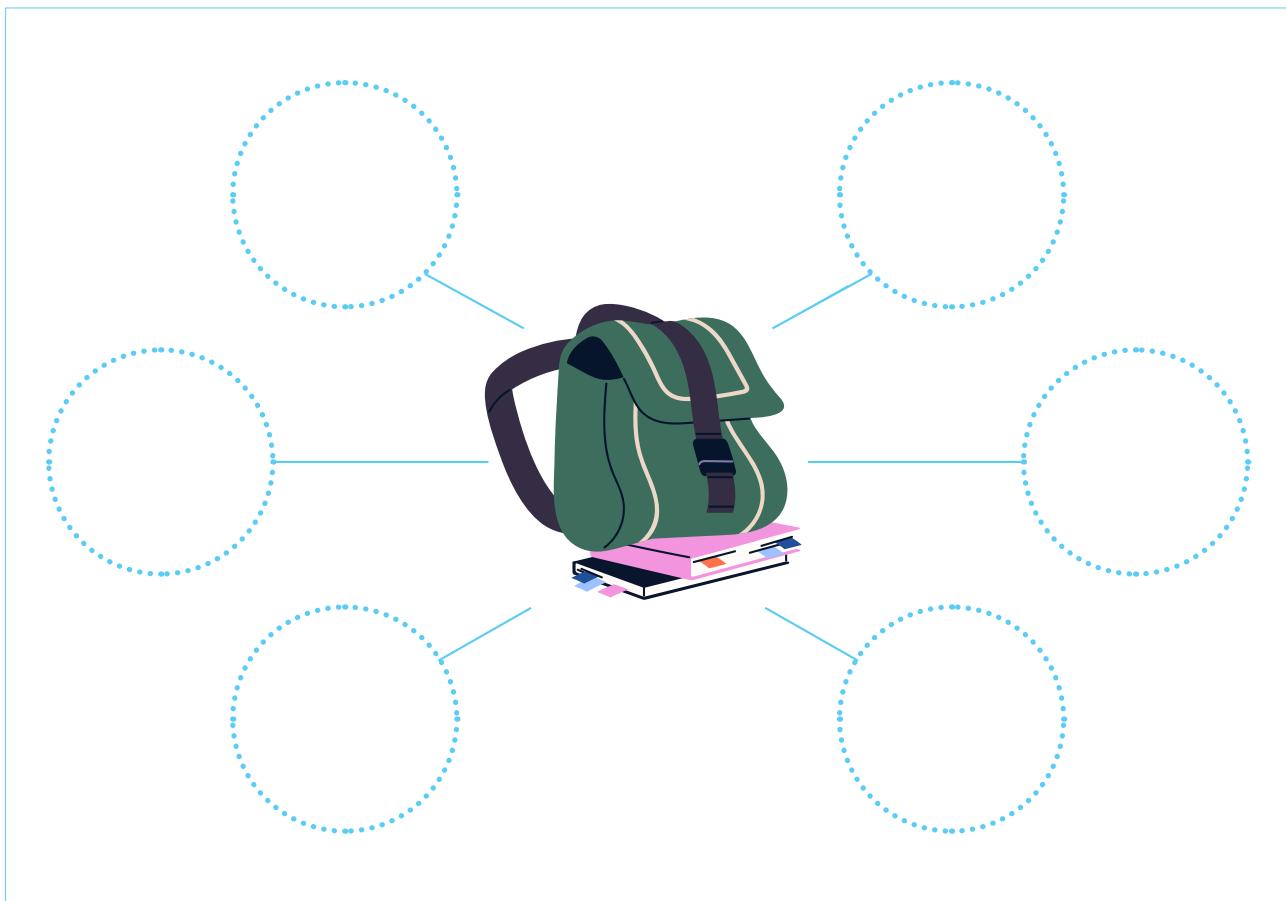
내 반려동물의 이름은

(이)고,

.....  
.....  
.....  
.....  
.....  
.....

## 2. 소중한 물건으로 가방 채우기

- 전쟁이나 재난, 정치적인 문제 등으로 국가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사람을 난민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 전쟁이 나서 난민이 되었다고 상상해 봅시다. 지금 당장 짐을 싸서 우리나라를 떠나야 한다면 어떤 물건을 챙길지 적어 보세요.



- 앗, 가방이 꽉 찼어요! 내가 넣은 물건 중 세 가지만 가져갈 수 있대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할 건가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 3. 아말을 찾으라

- 『아말과 사마』에 나오는 고양이 아말이 광장을 떠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말이 광장을 떠나지 않은 이유는

.....

.....

- 만약 여러분이 사마의 의뢰를 받고 아말을 찾으러 온 고양이 탐정이라면 어떤 방법으로 아말을 찾을지 생각해 보세요. 고양이의 습성을 참고하면 아말을 찾는데 도움이 될 거예요.

I. 아말을 찾기 위해 제일 먼저 무엇을 할까요?

힌트: 아말과 만난 적 있는 사람

.....

.....

2. 아말을 찾았을 때 어떻게 아말을 잡을까요?

힌트: 고양이는 액체처럼 흘러내린다.

.....

.....

3. 아말을 잡고 나서 어떻게 사마에게 전달할까요?

힌트: 검역소에서 카밀로가 찾은 물건.

.....

.....

## 4. 바다 건너 온 사마

- 사마와 친구들은 난민입니다. 난민에 대해 알아보고 질문에 답해 보세요.

난민이란?

전쟁, 폭력, 정치적 박해 등으로 고국을 떠나 다른 나라에서 안전을 찾는 사람.

난민법

강제 송환 금지 원칙에 따라 나라에서 강제로 추방하거나 송환시킬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난민 정책

대한민국은 2012년에 난민법을 제정했습니다. 출입국항에 도착했을 때 난민 인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난민 신청 통계

2024년에 신청된 난민 인정은 18,336건으로, 이 중에서 심사를 거쳐 난민으로 인정합니다.(1994년부터 2024년까지 누적 난민 인정자는 1,544명)

최근 난민 위기 사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2024년 기준 우크라이나 난민이 약 690만 명 발생했으며, 대부분이 폴란드, 독일, 러시아 등 유럽 국가로 이동했습니다.

- I. 난민이 대거 발생한 나라를 찾아보세요. 큰 전쟁이 일어나면 그만큼 많은 난민이 생겨납니다.

2. 사람들이 고향을 떠나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일까요?

3. 우리나라는 난민을 어떻게 생각하는 것 같나요?

## 5. 기사 작성하기

- 지금부터 여러분은 난민을 취재하러 온 기자입니다. 물론 니콜라처럼 아말을 일부러 놓아주지는 않겠지요. 아말이 검역소에서 실종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나서 어떤 기사를 쓸지 생각해 보세요.

### 기사 작성하는 방법

- 필요한 정보를 육하원칙으로 정리합니다.
- 독자를 정하고 서론, 본론, 결론으로 구성된 개요를 짍니다.
- 신뢰할 만한 출처를 근거로 사용합니다.



1단계

언제?		무엇을?	
어디서?		어떻게?	
누가?		왜?	

2단계

내 기사를 읽을 사람: .....

개요

서론	
본론	
결론	



## 6. 희곡 맛보기

- 연극의 대본을 희곡이라고 합니다. 희곡은 대사와 지문으로 구성돼요. 아래 예시를 한번 볼까요? 책 8~9쪽과 무엇이 다른지 생각해 보세요.

예시

파도에 흔들리는 배 위에 사마가 앉아 있다. 아말이 사마 무릎에 앉아 사마를 바라본다.

아말: 야옹!

사마: 배고파?

아말: 야옹!

사마가 가방에서 작은 육포 조각을 꺼내 반을 잘라 아말 입에 넣어 준다.

사마: 먹어.

아말: 야옹!

아말이 육포를 먹는 모습을 보고, 사마가 싱긋 웃는다.

사마: 이게 우리 마지막 식량이야. 배가 빨리 육지에 도착해야 할 텐데…….

멀리 수평선을 바라보던 선장이 놀라 소리친다.

선장: 육지다!

- 연극은 대본뿐만 아니라 무대 장치도 중요합니다. 장면에 맞는 무대 장치를 상상 해서 그려 봅시다.

(힌트: 아말과 사마가 배에 어떻게 앉아 있나요? 사람들은 몇 명이고, 육포의 모양이나 배의 크기는 어떤지, 배 안에 무엇이 있는지, 사람들의 표정이 어떤지를 상상해 보세요.)



## 7. 회극 빙칸 채우기

- 아말과 사마는 결국 다시 만납니다. 그런데 둘이 재회하는 순간, 광장에서는 동물들의 영역 다툼이 한창입니다. 그 장면을 상상해서 빙칸을 채워 보세요. (135~142쪽)

광장 분수대 근처에 빅, 한스, 해피가 삼각 구조로 서서 서로를 노려보고 있다.  
한스의 발치에는 화이트가 축 늘어져 있다.

빅: 저리 가라고 했잖아! 그만하라고!

한스: .....

발톱을 세운 아말이 빠른 몸놀림으로 달려가 공격 자세를 취한다.

아말: 도대체 무슨 일이야!

한스: .....

빅: 제발! 우리 좀 인정해 주면 안 돼? 다 같이 사이좋게 살자고!

한스: 감히 내 집에 고양이를 보내?

그 순간, 빅이 한스의 다리를 문다. 한스도 빅에 저항하며 공격한다.

빅: .....

한스: .....

아말: 시끄러워! 싸움 도중에 말이 많아!

순식간에 광장이 피투성이가 된 동물들의 숨소리로 가득 찬다.

아말과 화이트는 간신히 숨을 내쉬고 있다.

아말: 광장을 떠나면 사마를 만날 수 없는데……. 나 이제 죽는 건가?

멀리서 사마가 다급하게 뛰어와 아말을 안다.

아말: .....



- 위 장면에 더 넣고 싶은 대사나 인물이 있나요?

## 8. 희곡 쓰기

- 전쟁이 일어나기 전, 평화로웠던 사마 가족의 아침 풍경을 희곡으로 만들어 주세요. 등장인물은 엄마, 아빠, 아말, 사마입니다.  
(힌트: 사마네 가족이 아침에 무엇을 먹었을지, 다들 표정이 어떤지, 식탁에서 어떤 이야기를 할지, 아말은 어디에 앉아 있을지 등을 구체적으로 상상해서 적어 보세요.)

- 평화로운 사마네 아침 풍경을 상상하며 감정을 실어 대사를 가족과 같이 읽어 봅시다. 누가 가장 대사를 잘 읽었나요? 가족과 함께 희곡을 읽고 난 느낌은 어떤가요?

.....  
.....

## 9. 희곡 쓰기

- 사마가 학교에 나오지 않아도 된다는 말을 들은 과거를 떠올리는 장면(28쪽)을 희곡으로 만들어 봅시다. 실제로 그때 사마는 이제 친구들을 다시는 만날 수 없다는 생각에 마음이 좋지 않았다고 해요. 등장인물은 선생님, 사마, 같은 반 친구들입니다.

(힌트: 사마와 학교 친구들이 나눈 대화, 교실 풍경, 친구들의 특징 등을 상상해서 이야기를 만들어 주세요. 만약 내가 사마의 입장이라면 어떤 대화를 나눴을지 생각해 보세요.)

- 전쟁으로 이제 학교에 갈 수 없는 상황에서 친구들 마음이 어땠을까요?



- 만약에 내 친구들이라면 어떤 말을 했을 것 같나요?

( ) (은)는 .....

( ) (은)는 .....

- 친구들이 한 말을 넣어서 희곡을 다시 써 보고 친구들과 읽어 보세요.  
처음에 쓴 희곡과 어떤 점이 다른가요?

